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다문화가족을 위해
내용을 음성 출력 및 번역해주는
2차원 바코드 '보이스아이'입니다.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 후 코드스캔 후
음성 출력 및 번역하세요.



삶의 힘이 자라는

2022 봄 제28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우리인천교육

고려산 진달래





Cover story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기획 및 편집 김기호, 정다운, 김영상

사진 변상호, 이주한, 서주희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표지사진 인천신흥초 교감 류근성

홈페이지 www.ice.go.kr

디자인 · 인쇄 삼정인쇄(T. 032-773-3402)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2-0058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전화 032-320-0082

특집

- 04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
- 06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변화
- 08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이렇게 시작해요

캠페인

- 1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12 메타버스 안전교육플랫폼 안전스쿨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배워요
- 16 인천에서 만나는 독도
- 18 소통, 협력, 미래교육을 꿈꾸는 유아들의 행복놀이터
- 20 사이버진로센터

학교돋보기

- 24 미래형 인재양성의 중심 인천청라초등학교
- 28 은하수의 별★별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32 텃밭을 통한 꿈과 마음 키우기 프로젝트
- 34 아마추어리즘을 실천하는 체육교사

공감

- 36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콘텐츠 추천 리뷰(인천학생 힘찬이와 자람이)
- 38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실 상담

정보

- 40 웹툰 힘찬자람툰(다누리센터, 인천학생안전체험관)
- 42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초1 입학초 친구사귀기)
- 46 인천교육소식지 28호(봄) 컬러링 이벤트
- 47 인천광역시교육청 카카오톡 소개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독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인천교육소식(tinylife@ice.go.kr)"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기사,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와 함께하는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프로젝트

이화은 | 초등교육과 장학사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35년 인천의 학령인구는 2000년 대비 절반, 2020년 대비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¹⁾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되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의 특성과 개성을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미래핵심역량, 『자기주도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교육계 역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등 혼란과 변화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학습 환경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이 새롭게 결합된 블렌디드 수업 등 ‘미래형 수업’을 향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의 학교 생활 및 수업적응, 학습성향, 학습 동기, 학습 습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²⁾

가르침보다는 『코칭』

자기주도학습은 내가 ‘내 공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학습 습관, 태도, 성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의 주인이므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등 적극적인 배움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학교)의 역할 역시 ‘가르침’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코칭’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맞춤형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 『스공비』

스공비는 학생의 학습 습관, 태도, 성향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등 자기주도학습력 신장을 위한 가정(학교)의 학습코칭 전략을 담아 개발된 자료입니다. 나의 학습상태 점검, 나에게 맞는 학습유형 찾기를 포함해 △동기와 목표 세우기, △독서 활동 전략, △배움을 두 배로! 기록 전략, △집중! 너도 할 수 있어, △시간이 남게 되는 마법, △취약 부분 극복하기, △습관 형성 프로젝트의 7가지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1) 인천투데이, ‘2035년 인천 학령인구 30% 감소’ (2021.5.27.)
2) 교육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 (2021.4.)

『꾸준한 실천』속에서 자리잡는 습관

학습 습관 및 태도 등과 관련되는 자기주도학습력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신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력 지원 자료인 ‘스공비’를 활용하여 겨울방학 ‘매일 스공비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겨울방학 4주(총 20일)간 학생의 학습상태, 학습방법, 학습성향 등을 점검하고 매일 한 가지씩 꾸준히 스공비 전략을 실천하며 자기주도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에서 학생의 매일 스공비 실천을 지원하는 학부모 서포터즈 217명, 교사 서포터즈 33명으로 총 250명의 서포터즈가 선정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학부모 서포터즈는 5개의 지역별(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 밴드에서, 교사 서포터즈는 1개의 밴드에서 매일 스공비 실천 인증, 인증 글에 대한 댓글, 그리고 다양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밴드에는 학부모·교사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는 현장 교사 3~4명이 함께 하여 서포터즈의 매일 인증활동에 대한 응원의 댓글과 질의 응답, 캠페인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주간의 매일 스공비 실천 프로젝트 후 서포터즈 활동의 의미있는 마무리를 위해 『학부모·교사 서포터즈 평가나눔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서포터즈 우수 참여자를 발표하고 매일 스공비 실천 사례를 나누었으며 다양한 소감과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나눔워크숍에 참가한 서포터즈들은 “스공비는 말 그대로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 0에서부터 100까지가 다 적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알찬 구성이었습니다. 겨울방학 인증이 끝나더라도 두고 두고 아이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해야 할 일과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연습하면서 자기주도학습에 한발 다가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이 곁에서 스공비 실천을 지켜보며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부모로서도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 다양한 소감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함께』하는 발걸음

가정과 학교가 발맞추어 함께 내딛는 발걸음들이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의 파도를 유연하게 헤쳐 나가는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에도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및 학생 개별 맞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변화

박송희 | 체육건강교육과 교사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유례없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의 수가 적어 질병관리청에서도 방역 체계를 변화시키면서 고위험군, 위중증 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육 현장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변했을까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도입 등 검사 체계 변화

이전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PCR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검사 역량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2줄)이 나온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주체가 보건소 → 학교로 변화

2월 전에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후 접촉자 범위를 정하고 PCR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검사를 안내합니다. 자율관리 대상자는 보통 같은 반,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해당됩니다. 자율관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는 실시하지 않고,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합니다.



Tip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형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자율관리 대상자가 많은 경우 원하는 학교로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자가격리 대상자 완화

질병관리청은 3월 1일부터 동거가족 확진 시 백신 접종 미완료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가격리는 하지 않고, 3일 이내 PCR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PCR 검사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교(출근)을 포함해 외출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이용한 간편한 확진일 등록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자가진단 문항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방역 체계 변경에 따라 문항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①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②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 및 결과 확인, ③ 본인 및 동거가족 중 PCR 검사 대기 확인, 이렇게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앱을 통해 확진 일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확진이 되면 담임선생님께 매번 알려야 했지만, 지금은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확진 일자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확진 일자를 등록해 놓으면 격리 기간에는 자가진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을 통해 학교 및 교육청에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시 환기 등은 감염병 차단의 필수조건입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킴으로써 감염병을 차단하여 내 몸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에 관하여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일상회복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따뜻한 봄날, 이 위기를 잘 넘겨 초록이 깃든 계절에는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만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이렇게 시작해요!

문아름 | 인천굴포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어린이집을 갓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학업의 시작 시점에서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몸짓만 한 책가방을 메고 교문을 들어서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웬지 모를 걱정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인생에서 학업과 모든 사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본규범을 익히는 단계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즐거운 곳, 가고 싶은 곳, 행복한 곳이라고 인식하여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자녀를 믿고 지원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습 1학년에서 배우는 교과 살펴보기

초등학교 1학년 교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활동 중심의 주제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일원, 세계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자질 함양을 위한 활동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 생활의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교과서	주요내용	보조교과서
국어	• 기본적인 언어생활 습득, 한글교육	국어 활동
수학	• 기본적인 도형 이해하기 • 수학의 규칙성 찾기 • 덧셈 · 뺄셈을 통해 생활에 적용하기	수학 익힘
통합 ①학교 ②봄 ③가족 ④여름 ⑤마을 ⑥가을 ⑦나라 ⑧겨울	• 기본생활 및 기본학습 습관 형성 • 주변의 모습, 변화, 관계 • 감각 느끼기, 아름다움 알기, 즐거움 누리기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안전한 생활	

생활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가정지도 알아보기

① 시간과 약속의 생활 지도

입학을 시작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므로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 합니다.

- 1) 약속한 시각에 자고 일어나기
- 2)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 3) 용변(대변)을 아침에 집에서 보는 습관 갖기
- 4) 등교 시간 잘 알고 지키기
- 5) 약속은 꼭 지키기

② 자율적인 생활하기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보호는 학생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적인 의지를 꺾기 쉬우므로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1) 자기 스스로 할 일을 알아서 하기(이 닦기, 세수하기, 손발 씻기 등)
- 2) 옷을 스스로 입고, 벗는 습관과 정리하는 습관 갖기
- 3)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기, 방 정리하기
- 4) 자기 물건을 확인하고 잘 간수하기
- 5) 학습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기
- 6) 물건을 사용하고 난 후 바르게 정리 정돈하기

③ 사회성 지도

자기중심적 사고가 매우 강한 시기이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의도적인 기회의 장을 마련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협동하고 양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 1)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하기
- 2)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기
- 3)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기
- 4)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태도 갖기
- 5) 공공시설물 사용법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 6) 선생님이나 어른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갖기
- 7)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을 습관화하기

④ 언어생활 지도

가정에서 사용하던 유아어를 고쳐주며 자기 의사를 정확 하고 바르게 표현하도록 지도합니다.

- 1) 부모님, 웃어른께 높임말 쓰기
- 2) 묻는 말에 바른 자세로 또박또박 대답하기
- 3) 친구 간에 고운 말을 쓰고 친절한 태도로 말하기
- 4) 때와 장소, 상황에 알맞은 말 사용하기
- 5) 다정한 말로 먼저 인사하기
- 6)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사용하지 않기

⑤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도

학생들은 등 · 하교 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등 · 하교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 1) 교통신호등을 바르게 보고 건너기
- 2) 길을 건널 때는 주변을 반드시 둘러보고 건너기
- 3) 학교에 가는 가까운 길을 알아두고, 그 길로 다니기
- 4) 차도나 인도에서 놀지 않기
- 5) 거리에서 놀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가기
- 6) 공사 중인 곳이나 위험한 곳은 주의해서 다니기

좋은 학부모가 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학교를 즐거운 곳,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공부하며,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참다운 학부모가 되기 위해 이러한 의미 있는 고민이 이어진다면 자녀의 아름다운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염은정 | 감사관 주무관

공익신고자 보호제이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에 근무한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으로 하인리히 법칙(1대 29대 300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산업 재해로 인한 중상자가 1명 나올 경우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있었고,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를 겪었던 잠재적 부상자가 무려 3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각종 대형 참사들은 사전에 그 징후와 경고에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점에서 우리는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300번의 징후를 알려주는 공익신고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에 안심을 더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이나 내부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판입니다.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모두 공익신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신고라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 심사를 받아서 공익신고를 확정하면 그때부터 공익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규정된 471개의

용기에 대한 보답은 신뢰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법률에 해당되는 행정처분대상이나 벌칙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 공익신고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6대 분야, 471개 법률 위반행위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등(신고자, 협조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 신분보장 :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보호 : 신고자등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신고자등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에게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 보상”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30억 원)
※전문신고인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16.1.25.부터 내부 공익신고자로 지급 대상 제한
- 포상금 : 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2억 원)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접수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인천시교육청 감사관(☎032-420-8160)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신고센터)(www.ic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남동구 정각로9)



메타버스 안전교육플랫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배워요

김민경 | 안전총괄과 장학사

「안전스쿨」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인천지역을 특화한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이다. 시·공간의 제약 없는 모바일 동시 접속을 통해 학생들이 각종 재난 상황 시 행동요령 및 안전 상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특히 학생들이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게임형 콘텐츠를 포함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 기존의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모바일 안전교육 콘텐츠와 차별화하였다.

안전스쿨 특징

- 인천지역을 특화한 환경구성
- SD 캐릭터를 통한 미션 완수 협동 게임
- 스테이지 미션에 따라 화재시 대피, 진화, 구조 등의 미션 수행
- 싱글 플레이(개인 연습용), 멀티 플레이(2~4인 협동용) 시스템
- 한 장소(교실)에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 플레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
- 마이 페이지에서 나만의 캐릭터 꾸미기 가능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담임선생님(일반관리자) 학생 계정 부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안전스쿨」의 구축으로 기존의 ‘온라인 360° VR 안전교육 플랫폼’인 「사이버학생안전체험관」과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안전 인지감수성 및 안전역량 함양을 위한 비대면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안전스쿨 구성



• 처음 접속시

싱글플레이로 자유롭게 학습하거나 로그인한 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학습 진행



최초 외모를 설정하고 360로 보면서 확인 가능
학습을 진행하며 아바타 설정을 위한 선택사항이 늘어나게 됨



• 감정표현목록

감정표현 중인 캐릭터 머리위에 말풍선+스티커 출력 가지고 있는 이모지가 왼쪽부터 표시됨
선택창에서 이모지를 누르면 선택창이 닫힘
감정표현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선택 창이 버튼에서 올라와 왼쪽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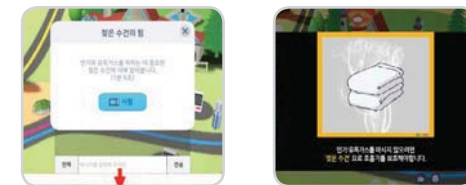


가입, 기본정보입력(이름, 학년 등), 비밀번호 변경, 찾기 등



• 광장소개

- ① 캐릭터 얼굴, 레벨, 경험치 등
- ② 캐릭터 머리위 자기이름 출력
- ③ 이동용 가상패드
- ④ 채팅창 : 평소 작게, 누르면 '입력모드' 전환
- ⑤ 시점변경
- ⑥ 감정표현선택
- ⑦ 설정, 공지 안내
- ⑧ 버튼 비활성화 상태



• 키오스크 활용

키오스크 근처에서 액션 버튼을 누르면 영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팝업창 출력
[시청]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유튜브 및 외부링크, 영상자료 등 재생창 밖을 터치하거나 닫기 버튼을 누르면 광장으로 복귀
영상 시청이 끝난 뒤 확인 절차를 거침





• 시점 변경

광장에서 카레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탐부-솔더부-소셜부-탐부로 시점 전환 가능

안전스쿨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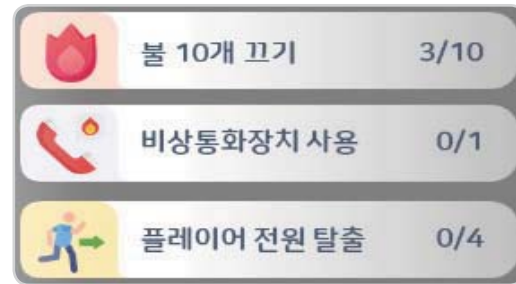
• 화재진압 학습 장면

- ① 필수 임무 진행 상황
- ② 캐릭터 정가운데 위치, 이동하며 배경 스크롤
- ③ 아이템, 지형 등으로 인한 버프, 디버프 상태
- ④ 획득한 점수와 남은 시간
- ⑤ 착용 중인 도구와 남은 에너지
- ⑥ 메인 액션



• 소화기 들기

소화기 앞에서 액션 버튼 누름
학생 앞에 소화기가 나타나고, 안전핀이 빠져 날아감
학생이 소화기를 든 자세가 된 동시에 아이콘에 소화기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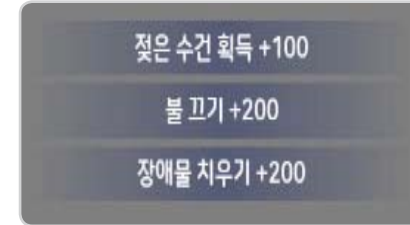
• 필수 임무 제시

스테이지마다 클리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들이 설정
제한시간 내에 해당 임무를 모두 마쳐야 성공
할당된 필수 임무를 모두 완료해야 스테이지 클리어



• 불끄기

소화기나 소화전을 들고 불길에서 일정거리(2m)앞에서
액션 버튼을 누름 누르고 있는 동안 소화액이 분사되어
타일1개에 붙은 불길의 체력을 감소시킴
체력이 0이된 불길은 사라짐



• 선택 임무 제시

학습 내에서 권장되는 활동을 할 때마다 점수 획득
한 명이 획득하면 모뎀원 전원이 얻음
별 3개 클리어를 위해서 빠른 클리어와 함께 선택
임무를 많이 수행하는 것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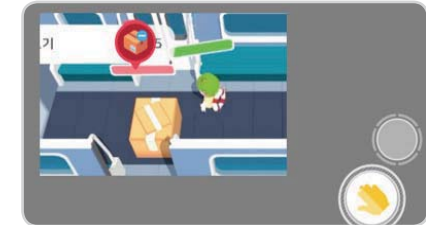
• 비상통화장치 사용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힘이 좋음



• 임무실패

스테이지 실패 시, 왼쪽과 같은 그림이 제시됨



• 장애물 치우기

장애물 앞에서 액션 버튼을 누르면, 일정시간 장애물을 치우는
동작 후 해당 장애물이 사라짐
두 사람의 협동이 필요한 장애물도 있음



• 아이템 습득

아이템 앞에서 액션버튼을 누르면 즉시 효과가 적용됨
상단에 효과와 지속시간이 표시됨
상단에 지형 효과 등으로 인한 해로운 효과도 표시됨



• 임무성공

스테이지 완료 시, 결과 화면으로 전환되기 전, 완료를 축하하는 짧은 연출, 실패할 경우 이 연출 없이 전환

- ① 성공, 실패 알림, 스테이지 번호
- ② 성공, 실패에 맞는 애니메이션 출력
- ③ 기록과등급(별개수, 남은시간, 점수)
- ④ 현재 레벨과 경험치
- ⑤ 스테이지 한 번이 끝나면 광장으로 이동
- ⑥ 실패 시에는 무조건 별 0개
- ⑦ 실패 시에는 경험치가 오르지 않음
- ⑧ 실패한 스테이지는 재시도 가능



‘인천에서 만나는 독도’ 인천독도체험관 개관

이슬아 |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우리나라 동쪽 끝 아름다운 섬, 독도를 인천에서 만나보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 인천광역시 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1층에 독도체험관의 새 문을 열었다. 2015년부터 1층 로비 벽면을 활용해 운영해 오던 기존 독도상설 전시관을 확장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했고, 전시내용도 완전히 새롭게 꾸몄다.

독도체험관은 독도 모형을 보고 독도의 생태계 등을 배울 수 있는 ‘자연과 생태를 느끼다’, 독도의 옛 이름 등 역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역사의 진실을 보다’, 독도 AR 체험 및 독도에서 찰칵 포토존 등 각종 독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독도를 사랑하다’ 등 총 4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체험관 활용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2022학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체험 위주의 독도교육 및 학교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독도체험수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 및 대안, 기타학교 등 재학생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오전 또는 오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용은 독도체험관을 활용한 독도의 생태, 역사 등 전문강사의 체험관 해설과 함께 다양한 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외에도 인천독도체험관을 활용하여 학교 독도교육 주간 운영 및 독도 자율 단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개방된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입구에 비치된 리플릿(초등용, 중·고등용 총 2종)을 이용해 자녀와 함께 활동지를 풀어볼 수도 있고, 체험관 내 독도 AR체험 및 포토존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성인 관람객은 다양한 독도 관련 전시물 등을 둘러보고, 체험관 내 휴게공간에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독도 방탈출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독도체험관 운영 안내

인천독도체험관은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화~금요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차량 이용시 지하주차장, 도보 이용 시 2층 2번 출입구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소통, 협력, 미래교육을 꿈꾸는 유아들의 행복놀이터

조정화 |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사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정명희)은 유치원 교육공동체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유아체험교육, 교원연수 및 부모교육, 유치원 지원 등 인천유아교육의 희망과 행복을 함께 디자인하며 지원하는 교육공간이다.

놀이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아체험교육

유아체험교육은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한 실내체험영역(5개)과 자연친화적 생태체험을 연계한 실외체험영역(5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 내 유치원 교육가족을 위한 열린 공간이다. 체험시설은 유치원 현장체험 및 가족 체험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체험 이용 설문 조사와 현장 소통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체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특별체험 활동

2021년에는 인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유아가족을 대상으로 클래식 텐트 콘서트 『넌 어느 별에서 왔니?』행사를 실시하였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텐트 내 가족 단위 관람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체험에 단비 같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와 함께 가족 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가을밤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체험 가족들의 높은 만족도로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 특별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드코로나 특별체험
(텐트콘서트)



실내체험영역(예술아이 놀이로)

인천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원연수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수업전문성 직무연수, 교직 기본소양 직무연수, 직급별 직무연수, 찾아가는 직무연수 등 직무 역할 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한다.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부모교육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 동아리(2개과정), 조부모교실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바람직한 유아교육관 정립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치원과 학부모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한다.

부모교육(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유치원 교육공동체 지원 활동

교육공동체의 교육 회복 및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아·학부모·사립교원의 맞춤형 상담을 지역의 전문상담 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및 교육자료 대여 서비스는 현장의 놀이환경 개선과 교사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색사업(마을과 연계한 도예체험 활동)



특색사업
(마을과 연계한 도예체험)

서구 지역문화 중 하나인 녹청자를 유아교육진흥원 도예체험과 연계하여 ‘꼬마공방’, ‘흙사랑’을 운영하고 있다. 꼬마공방은 평일에는 관내 공·사립 유치원 단체 체험 및 학부모 동아리 활동으로, 주말에는 가족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흙을 이용한 핸드빌딩, 초벌기물을 이용한 핸드 페인팅, 물레체험 등 다양한 도예기법을 활용한 놀이를 한다. 제작된 작품은 진흥원 가마실에서 직접 초벌, 재벌 작업을 거쳐 완성된다.

정명희 원장은 “앞으로도 인천 유아교육 선진 구현을 위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며 창의성을 기르는 유아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해 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로와 직업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강경주 | 중등교육과 장학사

‘내 꿈을 향해 [인사]하자’ 요즘 학교 플래카드, 버스정류장 포스터 등을 통해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홍보 안내물을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겁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온라인으로 진로검사, 진로상담, 진로 진학정보, 진로체험 등이 모두 가능한 진로진학종합플랫폼으로 2022년 3월 개원했습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인공지능, AR/VR, 메타버스 등 예전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사회 직업에 대한 정보와 체험이 가능한 에듀테크 기반 진로교육 시스템으로 크게 ▲진로AI시스템 ▲사이버진로 체험 ▲진로진학정보 3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콘텐츠별 특징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플랫폼

진로AI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진로적성검사 5종 검사를 통해 직업을 추천받고, 해당 직업과 관련된 인천 소재 체험처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희망 직무와 경험 탐색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도 추천 받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AI리포트로 제공되어 초·중·고 누적 관리됩니다. 직업과 직무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1:1 화상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AI적성검사

사이버 진로체험은 가상 회사를 통한 게임형 직무체험인 마이퓨처컴퍼니(My futher Company)와 VR 기반 미래직업체험인 마이리얼커리어(My Real Career) 2종류로 진행됩니다.

게임형 직무체험인 마이퓨처컴퍼니는 진로AI시스템에서 추천받은 직무를 가상 회사에서 체험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 회사는 인천 대표 산업인 바이오와 헬스/케어와 관련한 2개 회사이며, 회사마다 6개의 직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게임 형식으로 재미나게 진로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VR 기반 미래직업체험인 마이리얼커리어는 인천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30여 중(초등학생용 9종, 중학생용 9종, 고등학생용 12종)의 실감형 콘텐츠를 HMD 기기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가상현실 속에서 미래의 직업을 미리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는 진로, 진학, 직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학생 및 학부모가 관심이 많은 고입, 대입정보 구축, 진로 체험처 지도화, 직업 정보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은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입학 정보 구축에 중점을, 2022년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합격 가능 여부를 스스로 가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선생님과 구체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인천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진로 진학프로그램 마중물과 연계한 대입 정보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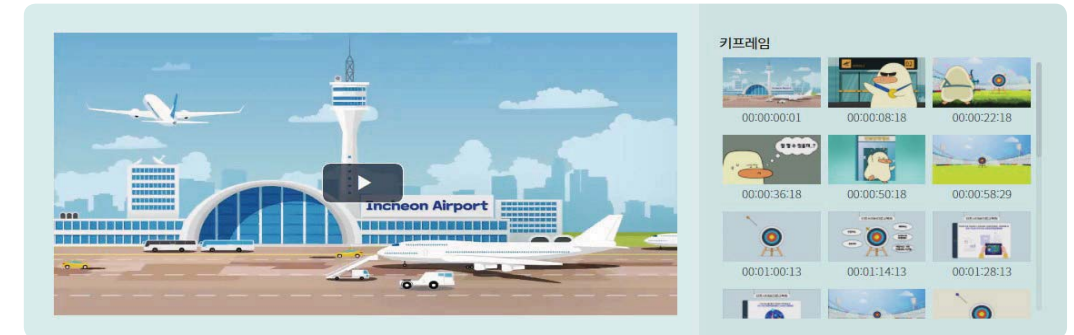
학생 거주지역에서 편리하게 희망 진로 체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과 대한상공회의와는 꿈길과 협약을 맺어 인천의 각 구별 지도상에 체험처 목록과 정보가 표시되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진로체험 후 느낀 점을 브이로그로 공유하여 많은 학생들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궁금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직업정보 코너를 제공하여,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가 분류별로 한꺼번에 검색되는 통합 검색 기능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로진학정보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포털 및 유튜브에서 쉽게 검색(검색어 :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주소: <https://cyberjinro.ice.go.kr>)할 수 있으며, 홍보 동영상에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주요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홍보동영상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 누구나 회원 가입을 통해 다양한 검사 및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14세 미만의 학생은 보호자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2022년에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 진로AI적성검사 구축, 사이버진로체험 고도화, 진로진학정보 내실화로 명실상부한 진로진학종합플랫폼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래형 인재양성의 중심 인천청라초등학교

김진모 | 인천청라초등학교 교사

**미래형 창의융합인재양성의 요람 인천청라초등학교,
미래인재를 양성하다.**

인천청라초등학교(교장 이택수)는 미래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교사 김진모, 유경란, 윤에서, 이세원, 김가윤, 조민준, 교장 강용복, 전송현)

첫째, 인천청라초등학교는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우수학교로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며 거꾸로 학습,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AR/VR/MR(증강현실/가상현실/복합현실)기술을 활용한 과학실험이 가능한 지능정보기술 데이터 탐구기반의 미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는 '지능형 과학실'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



왼쪽부터(조민준, 유경란, 전송현)

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의 중심인 인천청라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교육부 지정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로써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2021년도에는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초등학교 우수 학교로 선정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수상의 빛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천청라초등학교 지능형 과학실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고 정리하며 데이터 탐구수업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 직접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증강현실로 공유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이저 가공기, 3D프린터,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등을 활용해 데이터 탐구를 통해 모은 아이디어를 직접 제작하여 동아리 활동, 과학 체험부스 등과 연계시키는 메이커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탐구대회 및 동아리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인천청라초등학교 학생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및 탐구역량 함양을 위해 청소년과학탐구활동을 지원하는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2팀이 참가하여 최고상인 대상과 금상을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청소년과학탐구동아리 스팀팀은 옛 조상들의 칫솔 '속새'를 탐구하고 플라스틱 칫솔 없애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스팀걸스팀은 우리 민족의 전통무기인 '쇠뇌'에 대한 실험 및 탐구를 진행하여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청라초등학교는 2021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동아리대회를 필두로 인천학생 창의력챌린지대회 금상(교육감상), 전국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장려상), 인천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금상), 과학전람회(특상1팀, 우수상1팀)등 과학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인천 청라초등학교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앞장서서 운영하며 미래형 교육에 선도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격수업 경험 안착 및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미래형 수업 확산을 위해 교사의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작, 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입니다.

평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들을 제일 잘 아시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시는 맞춤형 교과서라 쏙쏙 이해가 잘 됩니다. 선생님의 만들어 주신 교과서 내에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정리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래형 수업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활용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책형 교과서 중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췌하고, 관련 온라인 콘텐츠 등을 함께 모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원하는

수업의 흐름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찾고, 새롭게 구성하며 나름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넷째, 다양한 창의미래형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학생중심의 미래형 수업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공간영역 미래교실(교실형) 사업을 통해 컴퓨터실이 새로운 학생중심의 미래교실로 변화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공간구성에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AI교육선도학교 사업을 통해 정보교육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산출하여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STEAM 교육선도학교, 재능계발영재선도학교를 운영하며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OBS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방송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청라초등학교 교장 이택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인천청라초등학교는 항상 노력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인천청라초등학교등에서 길러내겠습니다”라고 교육관을 나누었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인천청라초등학교등학교는 2022년에도 AI교육선도학교, STEAM선도학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별★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수희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

I. 은하수¹⁾, 다시 새 출발

“정답과 경쟁이 없는 학교, 나만의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는 학교, 모두가 학생이 되고 모두가 선생님이 되는 학교, 만들어진 학교 말고 만들고 싶은 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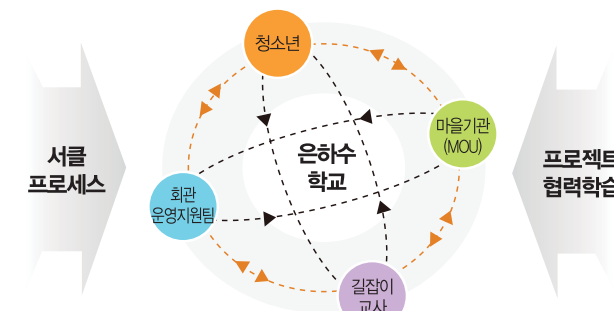
위 문구는 지난 2020년 인천에 청소년자치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모집했던 ‘청소년자치학교추진단’²⁾ 포스터 문구이다. 이것은 학생상·교사상·학교상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배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이 배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어떨까? 교육 대상으로서의 학생이 아니라, 교육기획자로서의 학생이 만들어가는 쥘~학교는 가능할까? 해야 하는 것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은 청소년³⁾과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어른⁴⁾들은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청소년자치학교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상상! 도전! 연대!’⁵⁾를 외치며 은하수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은하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가 아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청소년들과 길잡이교사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등지 삼아 한 해동안 은하수학교의 주인이 되어 직접 운영하는 자치배움터이다.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연령기에 있는 인천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은하수 자치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시민성·민주성·공공성·연대성 등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제3의 학교이자, 실험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은하수 구성원은 매년 새로운 구성원과 새출발을 준비하고 함께 시작한다. 이번이 세 번째 새출발이다. 청소년들과 길잡이교사가 함께 써내려갈 별별 이야기의 첫 문장, ‘은하수, 다시 새출발이다!’ 새출발은 신기하게도 항상 설렌다.

II. 은하수의 별★스런 이야기



은하수학교에는 은하수 프로젝트와 서클프로세스라는 별스런 문화가 있다.

첫 번째, 은하수 프로젝트는 청소년 사전기획단에서 세운 대주제 아래 청소년이 프로젝트의 기획-실행-평가를 주도하고 길잡이교사와 마을기관이 협력자로 동행하는 무학년제 협력기반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동체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청소년은 은하수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자유와 평등, 도전과 연대 그리고 문제해결의 기회와 공동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참 많다. 또한 매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은하수 자체평가에서는 해를 거듭하면서 자신이 ‘세상(사회)과 연결되었다’ 또는 ‘주체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상승 추세이다. 이것은 자치배움터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인데, 아마도 협력기반의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성적이 아닌 성장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평가가 아닌 성찰’에 은하수 구성원의 시선이 머물렀고, 청소년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배움을 공익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서클프로세스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원의 형태로 앉아 나이 또는 말썽씨와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와 소수의견까지 중요하게 듣고 말한다. 왜냐하면 말의 힘을 동등하게 나눠 갖고 책임은 함께 가져가는 소통방식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함께 걷는 걸음이라 속도가 느리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은하수 구성원은 서클프로세스에 대해 80%이상 만족하고, 지속해야 할 은하수 문화라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은하수의 별스런 문화는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배움의 공익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2021 은하수 프로젝트 중에 밴드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힐링 버스킹을, 요리팀은 반찬 30인분을 만들어 푸드뱅크에 기부를, 신체활동을 하는 팀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만들기팀은 기후·환경 행동달력을, 공간팀은 청소년의 쉼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2020년부터 목수가 직업인 길잡이교사에게 목공을 배우고 공간을 디자인하여 멋지게 공간을 채워가는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서로 연대하고 배운 것을 나누며 배움의 공익화를 실천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나의 행동이 학교를 넘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세상과 연대함을 느꼈다’고 말한다. 사랑의 가치가 참 절실한 세상이기에 성적이나 입시를 위한 배움보다는 평화를 위해 배움을 서로 연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1) 추진단에서 만든 이름으로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모두 저마다의 빛을 가진 별이고, 그 별들은 협력과 연대로 모두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2) 2020년 4월, 청소년 108명과 어른 35명, 총 143명의 가정)청소년자치학교추진단이 구성됨.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마을기관 및 마을어른)이 협력하는 스쿨크리에이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8월 ‘은하수학교’가 탄생 되었다.
3) 중·고등학교 연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기 위해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인천을 마을 삼아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조력하는 교원, 마을전문가, 청년 및 어른 멘토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마을 어른을 말하며, 명칭은 ‘길잡이교사’이다.
5) 은하수학교 슬로건 ‘새로운 상상, 따뜻한 연대, 모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은하수학교!’를 줄인 구호이다.

그런데 은하수의 별스런 문화를 받쳐주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청소년의 자발성과 길잡이교사와 운영지원팀의 백업(back-up)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길잡이교사는 토요일의 쉼을 유보하고 청소년의 자발성이 살아나도록 따뜻한 배움을 지탱해 주고 있다.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팝콘처럼 튀어오는 SNS 속 대화와 질문을 받아 안으며 길잡이를 해주고, 때로는 청소년만이 누릴 수 있는 실패의 권리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자원을 대가 없이 나누어 주고 있다. 그렇게 은하수 구성원 모두가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더불어 별스런 문화를 창조해 가는 중이다.

Ⅲ. 은하수, 작은 별의 큰 희망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과 다른 별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별들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어간다. 이처럼 삶속에서 자기 빛을 이미 내고 있는 청소년이나, 아직 그렇지 못한 청소년이 서로의 작은 빛을 반사해 주면 모두가 빛날 수 있다. 은하수의 작은 별들이 더불어 사는 은하수를 이루겠다는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은하수학교를 세우고 2020년 12월에 만들어진 ‘청소년 공동 선언문’과 2021년 8월 ‘길잡이교사 선언문’을 보면, 별의 크기와 빛을 내는 능력치와 상관없이 작고 큰 별, 모두 저마다의 빛으로 큰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겠다는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된다. 그 위로와 확신을 공유하고자 은하수 청소년과 길잡이교사의 선언을 소개하고 싶다.

첫째, 인천청소년자치학교 ‘은하수’ 청소년 선언문이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결과보다 좋은 과정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새로운 상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배우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로 우리를 빛내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별이 될 수 있지만, 함께 하면 은하수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통해 비전을 찾고, 사랑으로 연대하여 은하수를 이루겠습니다.

둘째, 인천청소년자치학교 ‘은하수’ 길잡이교사 선언문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나의 자원을 내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청소년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개개인이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스스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섬기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활동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되, 안전하도록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 모두는 존엄하며,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치를 알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친구이자, 마을 어른으로서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조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연한 생각으로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환대의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은하수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청소년과 끝까지 함께 은하수를 이루겠습니다.



은하수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시민이 되겠다는 청소년 선언이 온라인을 타고 동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가득 채운 지도 어느덧 두 해가 지나간다.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은하수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청소년과 끝까지 함께 은하수를 이루겠다’는 길잡이교사의 선언이 화답처럼 외쳐진 것도 역시 한해 전 온라인 속이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작은 별들의 외침이, 큰 울림이자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로 지금까지 생동하기에 2022년도 ‘은하수 이어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마스크 속에서 서로의 첫 만남을 시작해서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세 번째 해를 맞이하는 은하수지만, 괜찮다! 지금 ‘은하수 3기’의 새출발을 위해 74명의 사전기획단 청소년들이 반짝 반짝 환대의 빛을 내고 있지 않은가! 갈수록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은하수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로부터 출발하여 존엄과 사랑의 가치를 학습하는 미래학교로 연결되기까지 함께 꽃을 피우는 별꽃처럼 ‘희망’을 품고 또다시 ‘사랑’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에게 배움은 무엇이고, 교사는 누구인지를 되물으며, 학생 중심에서 학생주도로 한 걸음 먼저 걸어간다.

2022년 은하수3기

청소년이 세운 대주제 은하수, 우리 별빛을 모아 세상을 밝히자! 새롭게 펼쳐질 은하수 이야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상상, 따뜻한 연대, 모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은하수, 별난이들의 별★별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텃밭을 통한 꿈과 마음 키우기 프로젝트

전승호 | 인천청라중학교 교사

인천청라중 자유학년제 활동 ‘팜팜아트’는 텃밭 만들기 활동을 예술수업과 융합하여 감상 및 창작 활동으로 연계하는 활동입니다. 교내에 있는 옥상 텃밭에서 자유학년제 예술체육활동으로 2개반이 주 2시간씩, 17차시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배추, 무, 갓 등을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여 김장을 담가 판매한 후 수익금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을 이용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무말랭이, 시래기, 겉절이 등 요리를 만들기도 하는 등 농업과 융합한 활동을 통해 꿈과 나눔의 마음을 키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텃밭을 부탁해 - 꿈과 생태 감수성 키우기

아파트와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시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비료와 물을 주며 작물을 수확하는 농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평소 하지 않았던 일들이라 서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노력한 만큼 자라는 텃밭 일을 통해 농사에 대한 진로를 꿈꾸는 학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이 텃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 텃밭이 학생들에게 뿌린 꿈이 이제 싹을 트려고 합니다.

팜팜아트를 통해 꿈을 키운 학생들은 올해 농업기반 창업 자율동아리 “팜스라이프”를 결성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 텃밭 가꾸기를 하고 농작물 재배 및 가공을 통한 생산 및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판매 및 이익을 사회적 기부까지 계획하는 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부탁해 - 텃밭에 감성 한 스푼 더하기

텃밭에서 일하고 보람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러 곡물을 이용해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예술적 감수성을 더해 곡물 브로치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조각에 목공풀을 바르고 옥수수, 쥐눈이 콩, 렌틸 콩, 팥 등을 이용해 자신만의 곡물 브로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이 먹거리를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한 창작활동 등 예술적 가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환경을 부탁해 - 지구에 생명의 힘 더하기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심해지는 이 시기에 높은 생산량과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환경과 상생을 기본으로 친환경적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 벌레를 잡고, 난황유로 천연 농약을 만들어 벌레를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배추잎이 벌레에 상하기도 하고, 갓잎이 노랗게 마르기도 했지만 환경과 인간과 벌레가 공존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커다란 드럼통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환경에 대한 걱정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여 예술적인 빗물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빗물저금통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밭에 물을 주어 물 사용 절감효과를 얻고,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주고, 수질오염 완화 등 환경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요리를 부탁해 - 작물을 요리로 재탄생 시키기

직접 기른 배추와 무, 갓 등을 이용해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먹는 김치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키워진 작물로 만들어지는지, 김장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느끼며 친구들과 협력하며 재미있게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밭에 가서 바로 배추와 무를 뽑고 씻어서 채를 썰고 양념을 넣어 버무리고 절인 배추에 속을 넣어 서툴지만 맛있는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삶아온 수육과 김치를 집에 가져가서 먹고 맛있게 먹었다고 좋아하였습니다. 평소에 채소와 김치를 싫어하던 학생들까지도 직접 기르고 만든 김치라 맛이 있었다고 좋아하고 주변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남은 부산물로 무에 실을 꿰어 무말랭이를 만들고, 무청을 씻어 엮어 시래기를 만들고, 남은 텃밭 작물로 겉절이를 만들었습니다.

함께를 부탁해 - 나와 이웃과 마음 나누기

텃밭이 학생들에게 나눠 준 꿈과 감수성과 따뜻한 마음을 학생들은 다시 주변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만든 김치를 나눠 가져가기보다는 판매를 하여 수익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담은 김치를 정성스럽게 용기에 담아 학교 선생님들께 판매하였습니다. 이 수익금을 주변 노인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인 ‘소망의 집’에 연락해 필요한 물품을 사서 전달하였습니다. 소망의 관계자 분들도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학생들 또한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마추어리즘을 실천하는 체육교사

정유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파견교사



동계 스포츠 중의 하나인 컬링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팀 김의 ‘영미’를 외치는 모습을 통해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너무나도 생소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인천에는 그 생소하던 컬링을 10년 넘게 꾸준히 즐기며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운동부 선수(백석고), 대학동아리(인하대) 등 다양한 경로로 컬링을 시작했으며 제103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인천광역시 컬링 여자 일반부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총 11팀이 출전하였고 5개의 실업팀과 6개의 아마추어팀이 함께 경쟁한 이번 대회에서 인천광역시 컬링 여자 일반부 대표팀은 공동 3위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라는 팀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쉬는 날에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기 위하여 의정부 컬링 연습장까지 이동하여 팀워크를 키우곤 합니다.

이번 대회에 임하면서 대표팀 선수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기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은 샷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몰입의 기쁨을 느끼고, 서로의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과 응원을

인천광역시 컬링 여자 일반부 대표팀 선수 모두는 각자의 전공에 맞춰 현직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 치위생사, 체육 교사(인천가좌여자중 교사 한승희, 인천정보과학고 교사 정유정)등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이 있기에 평소에는 개인 연습만이 가능하지만 ‘스포츠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즐기 위한 활동이다.’



전하며 행복 에너지를 공유했습니다. 4강 경기에서는 비록 패했으나 경기를 지켜본 심판께서는 ‘경기 자체를 즐기며 웃고 파이팅 넘치게 서로에 힘이 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추어리즘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희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체육수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체 · 덕 · 지 전인교육을 통한 삶의 힘 배양, 배려와 협동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를 담은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으로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가치관과 고민이 녹아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저마다의 ‘행복 스포츠’를 찾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실천하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이 학생들에게 하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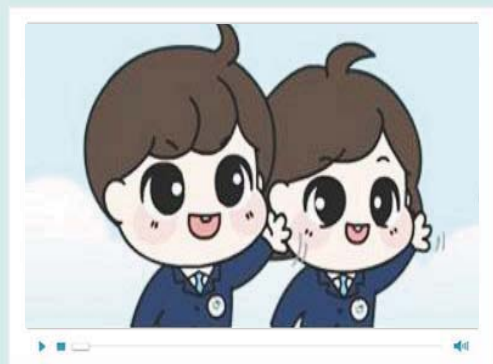


유튜브 영상 소개

인천 학생 힘찬이와 자람이



민경수 | 석암초등학교 교사(인천홍보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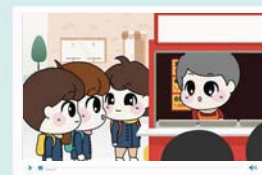
인천시교육청의 SNS 홍보 캐릭터 힘찬이와 자람이를 아시나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유튜브 채널에는 힘찬이와 자람이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인천 학생 힘찬이와 자람이'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1화 처음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자람이의 이야기입니다. 자람이는 낯선 사람에게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긴장하지만 이내 '교육재난안전 전용차량'을 떠올리며 안심합니다. 이 차량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출동하거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에 활용되는 차량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받을 수 있겠어!"라며 든든해하는 자람이를 볼 수 있습니다.



2화 에서는 붕어빵을 판매하시는 할머니를 돕는 힘찬이와 자람이가 등장합니다. 아프신 할머니를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힘찬이와 자람이. 인천 교육을 알리는 캐릭터답게 따뜻한 마음을 지녔네요.



3화 자람이의 부모님은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러다 힘찬이와 자람이의 친구인 빛나가 우연히 푸드트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SNS에 만족스러운 후기를 올려 손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3화의 줄거리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람이의 마음, 우연히 자람이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빛나의 행동이 우리 가슴을 훈훈하게 합니다.



4화 힘찬이와 자람이가 유기견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학생답게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이 자랑스럽네요!



5화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찬이와 자람이의 학교에 소방대원이 직접 오셔서 구조안전매트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씩씩하게 매트로 뛰어내리는 힘찬이와 자람이! 5화를 보면 화재시 구조안전매트에 탈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 학생 힘찬이와 자람이'는 사랑스러운 인천시교육청의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교육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대한 친밀감도 높이고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적극 추천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실 상담

김연민 | 당산초등학교 교사

학기 초 학생들과 바쁘게 지내다보면,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관찰이 교우관계, 학습태도 평가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을 관찰하다보면, 학부모와의 상담이 피상적으로 흐르게 되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접근이 필요할까?

학생들의 평범한 일상을 ‘디테일’ 하게 바라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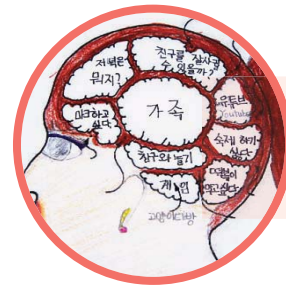
교사들에게 상담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생각보다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놀랄 때가 있다. 열심히 관찰하고 상호작용을 해보지만, 상담 시간에 특별히 언급해야하거나 나눌 만큼의 내용이 없어 당혹스러운 상담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교우관계 원만한 학생들의 학부모 상담은 시간 때우기로 변질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모든 학생은 저마다의 문제와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평범하다’,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교우관계와 학습 태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디테일’을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침 등교시간의 변화, 아침식사 유무와 종류, 학생들의 실내화 상태를 살펴거나 옷매무새 등을 보기도 하고, 대화할 때 주로 쓰는 낱말,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연예인, TV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등을 알아보는 활동을 수업 소재로 삼아보자. 매일 같이 입는 옷과 깨끗한 실내화가 학부모의 관심과 정성을 말해줄 것이다. 학생들의 필통 속 필기구는 학생의 용돈 규모와 성격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학생들이 책상 옆에 걸어 놓은 가방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해서 한번씩 들었다 놔보았다. 그 중 한 학생의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동의를 얻어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각 종 파우치와 연예인의 굿즈 등이 쏟아져 나왔다. 상담과 설득 끝에 물건을 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하고 난 뒤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을 하였다. 그 학부모의 첫 마디는 ‘너무 고맙다’였다. 매일 아침 잔소리를 해도 줄이지 않던 짐을 담임이 관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감동을 위한 전략으로써 ‘디테일’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 세부적인 것들을 교사가 둘러보기 시작하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 관점을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이 협력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일주일 중 가장 힘들고 바쁜 날의 스케줄을 적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학부모 상담 시에 학부모와 같이 이야기 나누기 좋은 소재이다.

가장 바쁜 시간표



나의 뇌구조 그리기

큰 공간에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고민되는 것 등을 적어본다. 작은 점으로 표신 된곳은 신경쓰이고 귀찮은 것도 적어본다.

학생을 둘러싼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선물하자.

학부모 상담 주간, 연달아 두 학생의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두 부모 모두 자녀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 하루 종일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놀아요. 걱정이예요.” “우리 아이는 집에만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없나요? 걱정이예요.”

한 쪽은 친구도 너무 많고, 밖에만 있어서 걱정이고 다른 쪽은 친구도 적어 보이고,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만약, 두 아이의 부모가 서로 자녀를 바꾼다면 만족스러울수 있을까?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에게 가지는 비합리적 신념이 하나 있다. ‘학생은 행동은 인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의 태도와 인성을 교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양육과정에서 학생이 보이는 행동의 패턴 때문에 부모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는 한다. 실제로 인성과 태도의 문제가 중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행동과 잔소리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학생의 문제를 인성과 태도의 문제로 결정짓는 순간, 모든 화살이 학생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학생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고 학부모의 책임 회피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상담 중, 학생의 게으름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례를 들던 중에 ‘밥 먹을 때 너무 늑장을 부려요.’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는 부모가 있었다. 학생의 게으름과 식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궁금증이 생겼다.

“혹시 저녁 식사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저녁을 먹고 나면 매일 풀어야 하는 과외숙제가 있다는 것이다. “혹시 과제가 하는 게 걱정 되서 저녁식사 늑장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식사 전에 과제를 마치게 하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놀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그 학생은 저녁 식사를 10분 만에 먹었다. 이런 제안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점심 급식 시간에 그 학생이 친구들과 놀기 위해 급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실제, 학생의 행동변화가 위 사례처럼 단시간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렇기에 어른들은 학생을 둘러싼 주변에 문제가 없는 지, 지시와 시스템에 부당함이 없는 지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 ‘네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어서’의 관점은 학생 당사자에게도 자신을 더 자세히 돌아보는 여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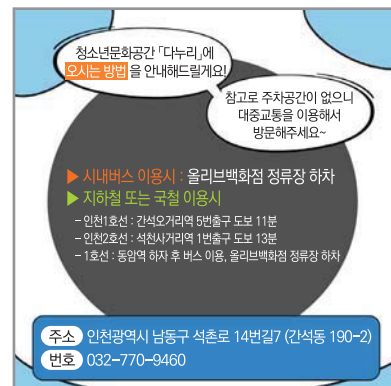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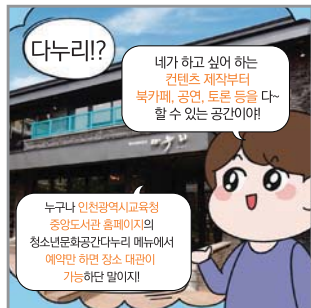
학생을 둘러싼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학교, 학급 시스템과 부모의 양육방식의 허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할 때 교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할 것이다.



웹툰 힘찬사람툰

다누리센터

소통협력담당관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소통협력담당관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1

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
친구사귀기

소통협력담당관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2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3

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
친구사귀기

소통협력담당관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4



인천교육소식지 28호(봄) 컬러링 이벤트

컬러링 이벤트

2022년 반가운 새해 호랑이를 힘찬이와 자람이가 맞이해 주고 있네요!
힘찬이와 자람이에게 색을 칠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세요



블로그 댓글로 색칠한 이미지 첨부 후 모아폼에 이벤트를 신청해 주세요.

이미지 파일 : 인천시교육청 블로그 이벤트 게시글에서 다운

응모기간 : 2022. 4. 4.(월) ~ 2022. 4. 15.(금) 17:00

참여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응모방법 : 1. 우리교육청 카톡채널 추가/유튜브 구독

2. 우리교육청 인스타그램 팔로우

3. 우리교육청 블로그 댓글 컬러링 이미지 첨부 후 모아폼 작성(필수)

발표일자 : 2022. 4. 21.(목)

이벤트상품 :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배스킨라빈스교환권(10,000원권) 지급

이벤트 바로가기



모아폼 바로가기



신속하게 인천교육소식을 만나보세요!

STEP 01



카카오톡 실행

STEP 02



인천시교육청 검색

STEP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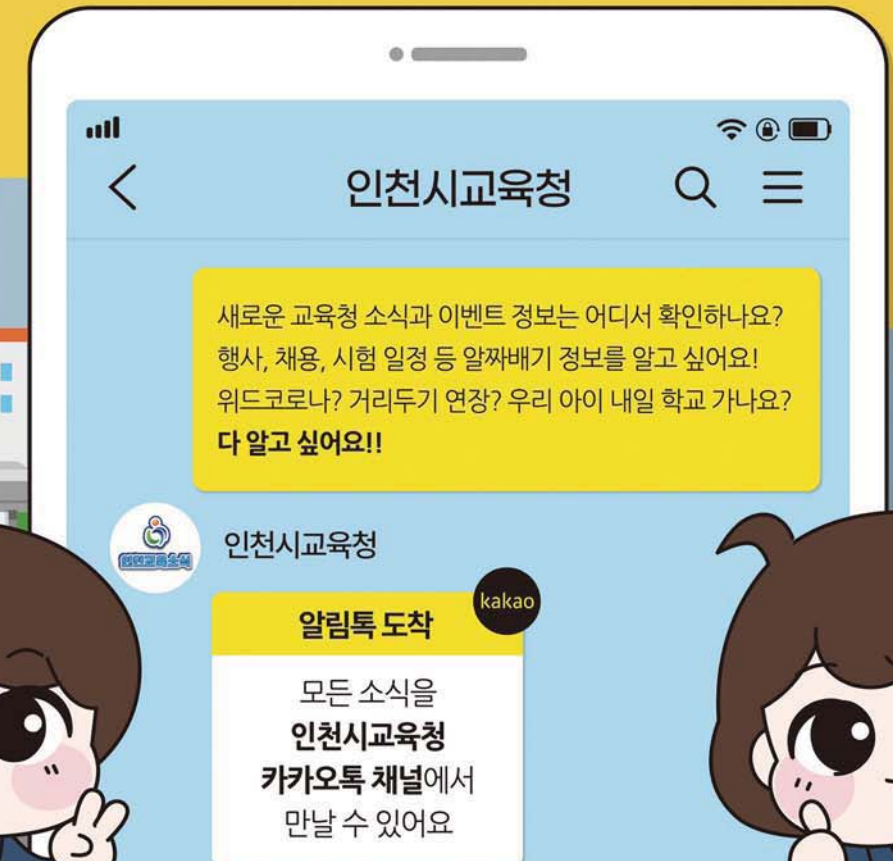


채널 추가하기



QR코드

“ 카카오톡 채널로 인천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



그대가 활짝 웃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봄이죠

강그림 x 인천시교육청